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

국



배순덕
화가·호는창랑

히드로 공항을 내려 런던 시내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모든 것이 비교적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영어 문화권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동안 차례로 거쳐 왔던 다른 나라들(독일, 폴란드, 소련, 프랑스 등)에서도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 막막함이 컸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자그마치 십여년간을 골치 썩이며 씨름해 온 과목이 바로 영어과목이다. 그러면서도 늘상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던 영어라는 그 언어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처럼 반갑고 친근감이 느껴졌던 건, 그래도 내게는 우리말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가장 가능한 언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상점의 이름만 보고도 무엇을 파는 곳인지 짐작이 갔고, 거리에 이정표가 있으면 굳이 사람을 붙들고 길을 물어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편했다.

템즈강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비스듬히 자리잡고 있는 이천년의 고도 런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안개의 도시이다. 이런 것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러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런던은 식민지 시절 로마인이 자리잡은 '시티'(The City)가 그 발상지이고 시티 부근에는 지금도 로마시대의 유적인 성벽이 남아 있다.

노르만디공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디 왕조를 세운 11세기 이후부터 성쇠를 거듭해 오다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에 의해 대영제국의 영화와 위용은 태양처럼 빛났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2차대전 이후에는 해외의 식민지도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은 독자적인 국방과 외교권을 가진 49개의 독립국으로 영연방이 구성되어 있고, 영국의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1.1배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룸즈버리(Bloomsbury) 지역에 있는 대영박물관은 결코 해가 지는 일이 없었던 대영제국의 영화와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었다.

1759년 세계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문을 연 대영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과 함께 고대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

으로도 유명하다. 그 중에는 이집트, 로마에서 가져온 각종 석상과 미이라들, 그리이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져온 대리석 조각과 여러가지 부조, 대현장의 사본, 베토벤의 악보, 중국의 도자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본 등이 있었으며 박물관의 후문 계단 입구 양 벽면에 대문짝처럼 커다란 우리나라의 4천왕상이 눈을 부릅뜬 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 반가웠다.

또 한가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비로소 공산주의 사상을 완성한 곳도 대영박물관 안의 대영 도서관이고 보면, 대영박물관은 공산주의 사상의 탄생을 도와 준 산파이기도 한 셈이다.

박물관을 완전히 보려면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걸릴 거라는데 시간에 쫓기는 나로서는 극히 일부분 밖에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박물관 안의 이집트·로마관에 있는 미이라라는 참으로 인상 깊었다. 관에 담겨진 채



◀ 대영박물관의 이집트관에 있는 미이라

전시된 것도 있고, 누운 채 봉대와 같은 때에 감겨진 것도 있었으나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충격적인 미이라는 사막에 버려져 웅크린 채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어찌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뼈에 그대로 감겨 있는 살가죽, 웅크린 다리 사이로 슬쩍 내 비쳐진 성기, 수세미처럼 부스스한 머리 카락, 팽한 눈과 코, 입, 가느다란 손가락과 팔목 등이 영락없이 방금 잠이 든 뼈짜 마른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다.

생전의 그도 한 때는 누구나가 부러워 하는 눈 부신 젊음을 가졌을 것인데, 사후에서 처럼 흉한 몰골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이나 했겠는가?

벨슨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트라팔가 광장을 거쳐 버킹검 궁으로 갔다.

여왕이 출타 중인 버킹검 궁전에는 깃발이 나무까지 없었다.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곡선형의 궁궐모습을 연상했던 내게 버킹검은 저으기 실망스런 모습이기도 했다. 창이 많고 직선형의 반듯반듯한 버킹검 건물에서는 동화에 나오는 중세의 낭만적인 왕자와 공주의 모습이 잘 연관되어 지지가 않았다.

그래도 궁전을 둘러싼 담장의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빛이 그런대로 궁전의 위엄을 지켜주는 듯했고, 궁전앞 광장에서 서 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탑 역시 똑 같은 황금빛이었다. 금빛 날개옷을 입은 여왕은 세계를 다 가졌다는 뜻으로 오른 손에 둥근 지구분을 들고 서 있었다.



▲런던의 주택가. 질푸른 영국해협을 사이에 둔 런던과 파리의 주택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었다. 건물 지붕 위로 솟아오른 굴뚝이 영국은 크고 듬성거린데 반하여, 프랑스는 작고 촘촘하다.

그 모습은, 비록 대영제국의 영광을 잃었다고는 하나 E.C나 NATO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동서간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과 영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영광이 가득한 그 옛날에 대한 향수가 가득함을 짐작케 한다.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영국국가(國歌)의 한 귀절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God Save the Queen, 신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